

황지우씨

## 재앙을 맞이한 인간의 실존적 고뇌 그린 시극

《오월의 신부》 퍼낸 황지우씨

5월 20일 저녁 8시, 일군의 코러스와 함께 장신부가 등장하면서 막이 올랐다. 그리고 장신부의 첫 대사, “그 일이 있는 지 이십년이 지난 오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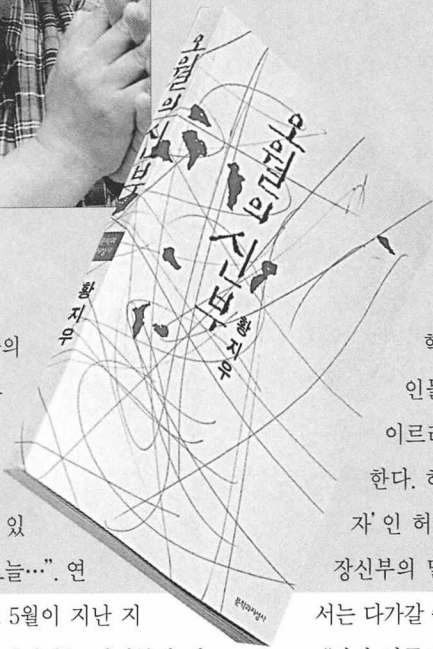
극 <오월의 신부>는 그 5월이 지난 지 벌써 20년이 됐음을 상기시키는 장신부의 회상으로 시작한다.

### 재앙 속에 떨어진 인간의 모습

“그날 밤, 마지막 밤, 도청 그 죽음의 문에서 떠밀려 나오면서, 아니 떠밀린 척하면서, 오 하나님, 제가 살아나오므로써 제 영혼은 죽어버렸습니다”라는 장신부의 독백은 황지우씨(48)의 시극 <오월의 신부>(문학과지성사)가 지향하는 바를 암시하고 있다. 이 독백을 실마리로 삼아 극을 따라가다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재앙 속에 떨어진 인간의 실존적 고뇌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는 ‘80년 광주’를 예술을 통해 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작품을 쓸 때 저는 철저하게 광주라는 역사적 무대 바깥 쪽의 이야기를 쓰고자 했습니다.”

이 극에서 역사로서의 광주는 최대한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극의 중심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인간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선, 갈등하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 자리잡고 있다. 장신부·허인호·김현식·강



문학과지성사/A5변형/228면/6000원

혁·오민정 등 극의 주요 등장 인물들은 순교를 통해 ‘불멸에 이르려는 열원’을 둘러싸고 갈등한다. 하지만 불멸은 ‘미쳐버린 성자’인 허인호의 몫이다. 80년 광주는, 장신부의 말을 빌리자면, ‘미치지 않고서는 다가갈 수 없는 곳’이다.

“이번 연극이 추상적으로 연출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전까지 문학이나 영화가 보여줬던 사실적 재현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림자극이나 인형극 같은 연극 외적 장치를 많이 차용하려고 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 극은 시민수습위와 시민군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5월 24일부터 계엄군의 도청 진압이 시작된 27일까지, 장신부와 허인호를 축으로 ‘80년 광주’에 고립된 사람들의 심리적 선을 따라 진행된다. 극의 공간적 배경은 서울역에서 광천동으로, 그리고 금남로를 따라 도청으로 이동하고 마지막에는 도청의 창가로 좁혀진다.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이동한 것인데, 이는 전체로서의 인간보다는 개인 혹은 단독자로서의 인간을 더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로 읽을 수 있다.

### 좌석을 메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

“위기에 놓인 인간본성의 밑바닥을 탐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인간 내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작품의 초점이 도청의 창가로 맞춰지도록 썼습

“인간본성의 밑바닥을 탐사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간 깊숙이 미시경을 대보고 싶었던 거죠.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인간 내면에 대한 좀더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니다.”

연극 <오월의 신부>는 예술의 전당 야외무대에서 공연됐다. 첫날 공연 당시 조금 쌀쌀한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좌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연령층은 다양했다. 하지만 의외로 30대 관객들은 드문 편이었다.

“전 주로 386세대들이 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20대와 40대들이 많더군요. 아마 광주를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 않았겠죠. 이 작품은 386세대들에게 바치는 헌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황지우씨는 야외무대라는 장점을 십분 활용해서 작품을 공연하고 싶었지만 제작상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다고 말한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조명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작전상의 이유’로 거절하더군요. 극적인 팽창을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또 거기에는 ‘광주’와 ‘군’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의 시가 연극으로 각색돼 무대에 올랐던 적은 있지만, 그가 직접 희곡을 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시·공간적인 제한 속에서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연극이 시와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연극 예찬론을 듣다보니 아마도 그의 시쓰기는 당분간 ‘휴업상태’가 될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갑수 기자